

사순 제1주일(2018년 2월 18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올해도 어김 없이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 하면 주로 생각나는 단어들이 단식, 절제, 기도, 선행, 고행, 극기 등의 단어들입니다. 사순시기하면 웬지 뭐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어려운 시기, 참고 인내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별로 재미없죠? 그런데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은총의 시기, 사랑을 체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시기를 절제하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쁘게 더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 안먹기, 담배 안피기, 술 안먹기, 초콜릿 안먹기 등등 절제하고 인내하려는 결심만 잔뜩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부활절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참다가, 부활 성야를 기점으로 그 절제하던 것을 다시 다 마음껏 하면 기분 좋겠지요. 그것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절제하고 인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평소 안하던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착한 결심을 세워서 실천하고, 성서를 조금 더 읽고, 성체조배나 묵주기도를 조금 더 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심을 세우고 실천하면 사순시기가 더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극기하면서 괜히 괴로워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사순 첫 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온갖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광야로 나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온갖 결핍과 부족함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나약한 자신을 체험하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나약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댈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으로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됩니다.

사순시기는 바로 광야 체험으로 비유 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불쌍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 하라는 거죠.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삶과 같은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인생이 버겁고, 힘들기만 한 순간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순간이 있지요. 바닥을 치는 순간이 언제든 올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저 하느님께 맡기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무작정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20대 때 저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남들보다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벌었던 돈 다 교회에 기부하고, 좋다는 직장 때려 치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옷 트렁크 딱 두개. 그렇게 빈털털이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출세 하지도 않았고, 벌어서 벌어들인 돈도 별로 없지만, 지금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부부싸움할 상대도 없고, 속삭이는 자식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제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사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감격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순간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다양한 축복과 은총은 또 얼마나 감사할 것입니까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일입니다.

올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작은 결심 하나 세워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다면,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작은 노력 한가지 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들, 혹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작은 사랑의 표현도 점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잘 안되나요? 서로 상처주고 상처 받았던 일이 있었다면, 다 잊고, 용서하고, 이번 사순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부터, 묵묵히 알게 모르게 조용히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변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올 부활은 더 거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토마스 머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시기는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총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40일간의 사순시기의 여정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때는, 부활의 기쁨과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